교양교육에서의 융합과 가치 생산성

홍병선*

주제분류 교양교육, 융복합학, 철학방법론

주 요 어 교양교육, 융합교육, 지식융합, 가치 생산성, 핵심역량

요 약 문

최근 국내 대학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교양기초교육 혁신의 문제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생산성 및 경쟁력 확보라는 절박함 속에서 보편적 지성인의 양성과 전문적 실용인의 육성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현재 교양교육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기초 및 핵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각 대학은 융합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으며, 융합 교양교과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융합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물음은 핵심역량 확보의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융합교육을 통해 그러한 역량이 실제로 확보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핵심역량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역량이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역량이라는 점에서 핵심역량 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도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실질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융합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학습방법 적용한 사고 훈련과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말하자면 학제적 교과목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다.

* 중앙대학교

www.kci.go.kr

1. 들어가는 말

대학 교육에서의 양적 팽창은 교육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외국 유수의 대학들이 교양기초교육 개혁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대학은 지식인 양성이라는 전문 교육과 국제적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일반 교육 사이의 기로에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지난 20여 년간 급격한 양적 팽창을 가져온 국내 대학의 경우 한편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생산성 및 경쟁력 확보라는 절박함 속에서 보편적 지성인의 양성과 전문적 실용인의 육성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대학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교양기초교육 혁신의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 요구 모두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교양교육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기초 및 핵심역량[1]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각 대학은 기존 교양교육을 전적으로 탈바꿈시킨 융합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특정 영역에 매몰되지 않는 융합적 인재상을 지향하는 융합 교양교과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융합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교양대학, 기초교육대학 혹은 학부대학 등을 지속적으로 발족시켜 왔다.[2]

---

1)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핵심 역량에는 대부분 비판적 사고력과 함께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국제화 역량 등을 꼽고 있으며, 좀 더 확장할 경우 지식 재구성 역량, 새로운 지식 창출 역량 등을 들 수 있다.

2) 물론 교양교육 전담 기구 발족의 출발점은 2001년경 대교협이 주관한 전국대학

www.kci.go.kr

이러한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와 교육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바로 융합교육이다. 이 경우 융합교육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전공교육과 무관하게 대학 교양교육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의 융합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전공의 경계를 허물고 통섭 교과내용을 지향한다는 의미에 따른 융합교육이다. 하지만 국내 대학에서 변혁을 위한 대부분의 시도는 전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융합 교양교과목은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대응 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제기되는 물음은 융합교육을 통한 핵심역량 확보의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융합교육을 통해 그러한 역량이 실제로 확보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융합교육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글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융합교양교육에 대한 가치 생산성 측면에 따른 진단과 함께 이러한 융합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실제로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융합역량 계발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

2. 지식 융합과 가치 생산성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 저장소로서의 책이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교육의 형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

교양교육에 대한 평가 결과가 도화선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세계 대학의 추이를 돌아보기 계기가 되었고, 이에 교육부가 주도하여 교육의 다변화를 꾀하기 시작했지만, 이후 각 대학은 이러한 영향과 함께 교양교육의 선진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각 대학 자체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그 교육의 중심에는 '학제적 교육', '융·복합 교육',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이 자리하고 있다.

www.kci.go.kr

게 된다.[3] 예를 들어 인터넷의 검색 엔진은 공간을 넘나들면서 연구자들과 학습자들에게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있다. 그 결과로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해진 사이버 영역에서 전개되는 실시간적 정보 교환은 연구와 학습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예컨대 연구실이나 도서관에 가만히 앉아서도 외국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최신 논문을 파일로 받아보고, 특정 주제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떤 논의들이 있어 왔는지에 대해 검색하는 일이 이제 일상이 되었다. 지식과 정보의 빠른 유통으로 인해 지식의 생산성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데, 가령 네트워크라는 열린 공간 속에서 온갖 종류의 접근을 허용하는 지식과 정보는 다양한 관점과 맥락 하에 재해석 되고, 더 나아가 이질적인 체계의 지식들 간의 융·복합적 결합이 이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와 지식의 융합이 정보통신 혁명의 결과에 따른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양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미 첨단 응용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학제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4] 또한 인문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예술의 경우 중세 때 다빈치에 의해 수행된 일련의 연구가 융합연구의 효시에 속한다고 여기

3) 로버트슨Robertson은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정보처리 혁명을 '제2의 르네상스'라고 부르며, 문명의 발전 단계(0단계 : 구술 언어 이전의 문명 단계, 1단계 : 구술 언어적 문명 단계, 2단계 : 문자와 쓰기의 문명 단계, 3단계 : 인쇄에 기초한 문명 단계, 4단계 : 컴퓨터에 기초한 문명 단계)를 정보 처리 속도와 능력으로 구분하는 흥미로운 모델을 제공하였다. 로버트슨에 따르면, 우리 주변을 배회하며 처분을 기다리는 지식과 정보의 양은 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그는 이에 의거하여 "교육의 변화는 컴퓨터 기술에 의해 촉발된 실천적 혁명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Robertson, D. S.(1988), *The New Renaissance*, Oxford Univ. Press, 20쪽. 이하 참조.

4) 1940년대 물리학 분야에서 발전한 방사성 동위 원소에 대한 연구는 캘빈(Calvin, M.) 같은 생화학자에게 새로운 생물학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고, 아울러 리비(Libby, W. F.)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개발하자 고고학적 연구는 새로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www.kci.go.kr

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각 학문 역영의 발전과 함께 기술의 개발은 새로운 탐구 영역을 열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발과 연구는 다시금 새로운 가치의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정보나 지식의 소통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처리 속도에 비례해서 파편화된 정보나 지식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소위 지식기반사회의 특성과 맞물려 생겨난 현상으로서 이른바 지식의 가치 생산성이라는 척도로 가늠하고자 하는 시스템 속에서 지식과 정보를 평가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지 않는 지식과 정보는 그 한계를 가늠하기 어려운 가상공간 속에서 빠르게 사장되어 버리고 만다.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사이비 지식이 양산되기도 하는데, 이는 결국 지식 생산자의 지적 권위가 점차 붕괴되는 조짐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네트워크의 확장성으로 인한 지식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상대주의적 의도[5]가 보다 공고화된 것일 수 있다. 양자 간의 상대주의적 전략이 확대될 경우 지식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계 자체가 모호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남게 되는 것은 지식과 지식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는 조건과 기준의 상실이다. 이러한 기준의 상실은 결국 지식이 왜곡되고 때로는 은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6]

---

5) 여기에서 상대주의적 의도라 함은 지식의 절대주의 견해와 상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마치 A가 옳으면 B역시 옳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식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6) 전통적인 관점에서 어떤 지식, 특히 이론적인 지식이 그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지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거나, 그것이 속한 이론 체계 내에 부합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유용성이나 사용 가치만이 문제시 될 경우, 그러한 지식의 정당화 조건이나 정합성과 같은 체계는 그다지 의미 있는 위치를 갖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로부터 벗어난 지식은 지식으로서 그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이 스스로 그 근거를 잃어버리고 만다. 따라서 지식의 파편화는 근거의 상실이라는 체계성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www.kci.go.kr

물론 그 이면에는 지식의 가치 생산성이라는 사용적 측면에 따른 유용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이 가치 생산성의 척도에 따를 경우 지식을 소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용성 혹은 쓰임이다. 말하자면 지식의 사용 가치가 지식을 소비하는 자의 방향성(orientation)을 결정해 버리는 것이다. 동시에 이질적인 체계의 지식들 간에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지식의 사용 가치와 연관된 문제이다. 말하자면 이질적인 지식 분야들 간의 융·복합은 지식의 유용성을 산출해 내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현실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른바 지식을 소비하는 주체로서의 대학의 방향성이 지식의 사용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역량 함양이라는 목적을 위해 각 학문 분야 지식들 간의 융·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들 간에 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장 새로운 가치의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경쟁적 시스템 속에서 지식의 가치 생산성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는 현재 대학들의 고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라는 절박함 속에서 핵심역량 함양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과연 창출해 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양교육을 개혁하려는 각 대학에는 이러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가 부과되어 있다.

3.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가능성 모색

최근 대학이 직면한 교육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한편으로 당연한 것일

www.kci.go.kr

수 있겠지만, 문제는 변화의 향배일 것이다. 지식 생산성을 위해 각 학문의 영역이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지식의 가치에 대한 반성적 고려 없는 변화는 방향성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더욱이 지식의 파편화에 따른 근거의 상실은 그런 위험성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 때문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 교양교육 내지 자유교육을 통해 방향 감각을 잡는 일이다. 왜냐하면 교양을 갖추고 자유교육을 실현한다는 것은 곧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대학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양교육을 통한 핵심역량 계발이 갖는 의미는 단지 전문적인 지식 영역에 진입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준의 지식 습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 교양기초교육을 통해 기초 및 핵심역량 계발을 지향한다는 것은 대학교육이 사회 및 기업 현장의 빠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배출과 대응 관계를 갖는다. 기초 및 핵심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것은 결국 빠른 속도로 다변화 하는 사회에 적응력이 강한 인재 양성의 당위성을 반영한다. 여기에서 사회에 적응력이 강한 인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로 어느 대학이든 예외 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전인교육과 융합교육이다. 물론 전인적 특성 함양과 융합교육은 지향하는 바가 서로 같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른바 특정한 전공이나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는 점에서 상호 공통된 목적을 갖는다. 그런데 제기되는 문제는 교양융합교육을 통해 총체적 조망이라는 역량의 함양이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의혹이다. 물론 대학교육에 있어 시장 논리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양자의 관계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여전히 걸림돌이 된다.

학문 연구에 있어 시장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www.kci.go.kr

우리의 현실은 대학의 개혁 역시 대학 간의 생존 경쟁이라는 경제 논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부인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경제 논리는 대학의 교양교과 내에서 학생들의 교과목 선호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지속적인 탐색과 깊은 사고를 요하는 교과목보다는 감각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과목을 선호하고, 지적인 통찰보다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과목들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거쳐 교육부 주도로 학부제로 전환하면서 각 대학들이 겪게 된 교과별 혹은 전공별 경쟁체제는 학생들의 교양 교과목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맞물려 기초 학문의 고사 위기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위기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게 된다.

교과목 선택의 자유를 가진 학생들이 인문학 기반 기초학문 분야에서 개설한 교양교과목들을 외면할 경우 학생들과 기초학문 간의 소통은 결국 단절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초학문이 사회 현장에서 그 유용성을 즉각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한, 이러한 단절이 학생들로 하여금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기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준 높은 전공 수업을 한다는 것 역시 대다수 학생들의 예상과 어긋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교양과 전공 사이의 소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초학문의 위기에서 더 나아가 전공의 위기 역시 피할 수 없다.

결국 불가피하게 기초학문 관련 교양과목의 교과 내용을 학생들의 요구나 눈높이에 맞게 편성할 경우, 교양 교과목은 단순히 학점을 때우는 강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강사의 입장에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좋아졌다거나 수강생 수가 증가했다는 지표만으로 위안을 삼게 될 것이다. 이는 학생과 교·강사 모두에게 교과의 목적이나 수업 준비의 동기를 잃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는 교양교육 전체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고, 나아가 전공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교양기초교육에서 학문적 탐구나

www.kci.go.kr

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결국 전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고 재교육의 부담을 고스라니 떠안게 된다는 점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공교육과 교양기초교육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 하는 점만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공 지식과 교양적 지식 사이의 소통 부재에 있다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교양교육의 정체성 결여에 있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전공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 단계 기초교육으로서의 역할만으로 교양교육을 규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효과적인 전공교과 수행을 위한 토대의 역할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 일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는 할 수 있어도 전적으로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이 전공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반드시 기초교육이 요구되는 학문분야가 또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물음은 교양교육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며 그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아마도 이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답변은 교양기초교육을 통한 핵심 역량 확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글로벌 역량 혹은 지식 재구성 역량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곧 지식기반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총체적으로 조망하여 새로운 발상에 따른 가설 설정과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새로운 결과를 산출해 내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7]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른바 이러한 역량들이 교양교육을 통해 과연 확보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여전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7) 홍병선(2016), 「현행 융합교육에 대한 진단과 융합역량 제고 방안」, 『교양교육연구』, 10(4), 한국교양교육학회, 21-22쪽.

www.kci.go.kr

이는 중등교육과 대학교육과의 연계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교양교육을 통해 단시일 내에 이러한 핵심 역량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혹이다. 왜냐하면 대학교육을 통해 이러한 핵심역량들이 실제로 길러질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로서 만일 이것이 회의적이라면 단순히 담론에 그칠 우려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핵심역량들이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그러한 역량이란 선천적인(*a priori*)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라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인 동시에 후천적으로 습득이 가능한 역량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량이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육 자체는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8] 따라서 핵심역량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역량이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는 역량이라는 점에서 다만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러한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현행 교양교육 운영 방식에 따를 경우 입문이나 개론 수준의 교양교과목을 습득하는 방식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확보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융합 교양교육과 그 실천적 적용

교양 교과목을 단지 전공 진입의 전 단계의 기초교육 정도로 여겨 전공 지식의 수준을 낮추어 입문이나 개론 수준으로 제공하는 한 핵심역량 확보와는 무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른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과 이공계 학생들에게 교과내용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호 교차하여 교과목을 제공하는 것은 교과내용을 오히려 피상적이게 만든다는 점에서

8) 홍병선(2016), 3장 참조.

www.kci.go.kr

핵심역량 확보와는 요원해지고 말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 지식의 융합이 이루어져 새로운 지식을 낳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의 함양[9]을 위해서는 교양교과목이 갖는 기존의 입문이나 개론 수준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융합 교양교과목이 그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목 내용 편성에서 다양성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창의력과 같은 발산적 사고력과 함께 지식을 전이시키고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원리들을 적용하는 능력의 함양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탐색과 체험을 전제로 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탐색과 체험이 없는 수업은 융합교육을 포함한 교양교육의 목적에 결코 부합할 수 없다.

핵심역량 계발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교양교육의 방향을 염두에 둘 때,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나 융합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수업과 아울러 전공의 제한이나 중압감으로부터 자율적이고 학생들 수준에 맞는 탐구 과제들이 교과목 내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융합 교양교과목의 설계에서부터 연구와 교육이 서로 동떨어진 것이라는 선입견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양교과를 단순히 기초적인 지식만을 전달한다는 관점 하에서는 융합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의 계발은 허구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융합 교양교과목이 폭과 깊이 모두를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공교육에서조차 그러한 수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오히려 학생들이 교양교육을 받는 단계에서 그러한 훈련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과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4),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과별 이해와 적용방안: 자유학기제, 완결학습체제, 교육과정개발」, 2014학년도 춘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참조.

www.kci.go.kr

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조차 핵심역량 확보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린다면 그 어떠한 교육적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떠한 변화의 가능성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그에 대한 답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핵심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업의 경우 '어떻게 수업을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로 '융합교과목'을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기존의 교양교과목에 대해 운영의 묘를 살려 운용할 경우 동일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융합교과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전공교육과 연관성이 없는 수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융합교과의 주제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장 어떠한 전공과도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융합 교양교육을 통한 핵심역량의 함양은 곧장 전공 학습 역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전공과도 무관하게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수업 운용에 있어 교·강사 개인의 선호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담당 교·강사 개인의 선호에 따라 수업이 진행될 경우 융합 교과목이 지향하는 공통의 목표와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10]

융합 교양교과목이 지향하는 핵심역량의 함양은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학문 분과를 통해 답변의 가능성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해주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융합 교양교과목은 융합연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융합연구 활동은 궁

10) Klein, J. Th.(1996), *Crossing Boundaries*, Univ. Press of Virginia, 210쪽. 참조.

www.kci.go.kr

극적으로 현실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가치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 지식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러한 융합연구 활동을 통한 융합 교과목은 기존 전공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문제 영역, 새로운 논의거리를 생산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일련의 융합 활동은 분과적 지식과 전문적 지식 그리고 지식 집단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클레인(Klein)의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11)]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조건들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융합교육을 시도하기에 열악한 수업 환경과 인적자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를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융합 교과목이 갖는 교과 내용의 폭과 깊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 동시에 새로운 학문적 주제, 혹은 새로운 관점의 논의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융합 교과목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의 성패는 교양교육 관련 기관 소속의 다양한 전공의 전담 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융합적 주제들을 개발해 내고, 해당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전공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체험이 가능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12)]

나아가 융합교과목 수업을 마련하는 교수들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해당 수업의 강의실로 그대로 이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그 강의는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나 과제를 중심으로 교수와 학생이 함께 탐구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융합의 본질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를 허물어 나가는데 있다. 물론 그 경계는

11) Klein, J. Th.(1996), 210-11쪽. 참조.

12) 홍병선(2009b), 「융합교육 활성화를 통한 대학 교육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한국교총 연구결과보고서,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참조.

www.kci.go.kr

단순히 학문적 경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부적절한 편견의 경계도 포함된다.

융합 교과목이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창의적 체험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 모두 동등한 연구자라는 관점에 따라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에게 비판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창의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융합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강사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자가 아닌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5. 나오는 말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동시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교양교육에 대한 개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확보한다는 것이 단순히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입막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변화의 계기가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역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도약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양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융합교육에 대한 강조는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 근저에는 무엇보다 지식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교육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역량이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역량은 선천적인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이 가능한 역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후천적으로 습득이 가능한 역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육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

www.kci.go.kr

게 된다. 결국 교육은 경험적으로 특정한 역량을 기른다는 차원에서 핵심역량 역시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역량이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역량인 것이다.

비록 핵심역량 확보에 대한 근거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실질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융합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융합교육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곧 실천적 전략에 대한 방향의 모색으로 이어지게 된다.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실천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은 다양한 학습방법 적용하여 다각적인 사고 방법과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학제적 교과목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이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에 각 대학의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역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제 융합 교과목을 운용한다고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남겨진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13] 우선 수업의 모형에 있어 개념적 접근을 통한 강의식 수업보다는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발견적 학습이 융합연구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미나 형태의 수업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물음의 형태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첨단 과학기술이 문화예술을 어떠한 형태로 변화시켜 왔으며, 문화콘텐츠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문명이 바꾸어 놓을 삶의 양식과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과제로 주어진다. 학생들은 교수의 가이드에 따라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하며, 논의를 통해 새로운 발상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융합 교양교과목을 개발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13) 홍병선(2009a),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대안 모색: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합교과목 개발」, 『교양교육연구』, 3(2), 한국교양교육학회 참조.

www.kci.go.kr

주제들을 개발해 내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수업 주제를 결정할 때 최대한 좁혀서 미시적인 주제를 선정해야만 한다. '인간과 문화예술'과 같이 외연이 큰 주제는 다루어야 할 내용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수업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각 영역을 핵심 내용보다는 외연적인 주제를 찾아 주제로 삼게 될 경우 탐구의 소재가 학생들의 상식선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외연적인 주제를 통한 개별연구와 집단연구를 통해 핵심 내용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표준화된 접근과는 차별화된다. 이는 곧 학생들의 발상을 전환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아울러 이러한 수업을 통해 교수는 새로운 학문적 논의 주제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융합 교양교과목의 개발과 교수 방식에 대한 연구 자체가 하나의 연구 과제라는 점에서 제시한 수업 모형과 주제는 하나의 시안에 불과하다. 융합 주제들과 다양한 수업 모형, 교수 방식 등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지현(2014), 「학제적 교양교과과정의 특징과 의의: 하버드대학 '새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8(3), 한국교양교육학회.

이화선, 최인수(2014), 「대학교양교육에서의 창의성 교육의 방향」, 『창의력교육연구』, 14(2)(통권23호), 한국창의력교육학회.

이희용(2011), 「지식융합 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 『교양교육연구』, 5(2), 한국교양교육학회.

홍병선(2016), "현행 융합교육에 대한 진단과 융합역량 제고 방안", 『교양교육연구』, 10(4), 한국교양교육학회.

홍병선(2009a),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대안 모색: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합교과목 개발」, 『교양교육연구』, 3(2), 한국교양교육학회.

홍병선(2009b), 「융합교육 활성화를 통한 대학 교육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한국교총 연구결과보고서, 한국교육정책연구소.

홍효정, 이재경(2015), 「창의·융합적 사고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 9(3), 한국교양교육학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4),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과별 이해와 적용방안: 자유학기제, 완결학습체제, 교육과정개발」, 2014학년도 춘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Charle, C.& Verger, J., *Histoire des universités*, 『대학의 역사』, 김정인 역, 한길 크세쥬 7, 1999.

Klein, J. Th., *Crossing Boundaries*, Univ. Press of Virginia, 1996.

Robertson, D. S., *The New Renaissance*, Oxford Univ. Press, 1998.

www.kci.go.kr

Convergence and Value Productivity in Liberal Arts Education

Hong, Byung-Sun (Chung-Ang Univ.)

This paper studies that the innovative problems of basic education recently in the society of domestic universities are difficult issues involved in two terms of fostering universally intellectual growth to secur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logic of market economy and training professional and practical promotion to respond social need respectively.

In a sense most universities currently are trying to change liberal arts education focused on strengthening foundation and core competence. In order to strengthen core competence currently, it is true that each university has adopted an integrated liberal arts with education program both applying to its characteristic and spurring the development convergent subjects for the intellectual image. In this paper the questions happened to the convergent education are to secure the ability that the possibility of core competence is in connection with the realistic problems.

However, we have to know that core competence can be provided through acquiring ability in education rather than innately given situation. So that it demands to have strategies of convergent education program for students to practically sustain core competence. In conclus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roviding core competence is the learning method of variously disciplinary thinking train and heuristic education and actually applying to opportunities. So to speak we have

www.kci.go.kr

to try to discover how to enlarge the interdisciplinary subjects for the students and provide them to find solutions.

Key words: liberal arts education, convergent education, convergence of knowledge, value productivity, core competence

홍병선 E-mail: hbshong@cau.ac.kr

투 고 일	2017년 04월 24일
심 사 일	2017년 05월 03일
게재확정	2017년 05월 15일

www.kci.go.kr